qjwRhcdlQmek님 논술 첨삭 (연세대학교 2011 사회 과학적 탐구)

문제1.<3자비교>

1. 일단 내용상으로 접근하면, 2문단에서 제시문 (가)는 과학적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답안을 작성하셨는데, 여기까진 답이 맞아요. 그렇다면 과학적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으니 이제 왜 그런지 근거가 명확히 보충되어야 완벽한 글이 됩니다. (물론 이는 제시문에 기반해서 서술하셔야 되구요.) 그런데, 2문단 중간에 '세월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시문에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원인이 되는 대상을 추리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제시했기에 이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장은 좋으나(비교기준) 그 비교기준에 따른 합당한 근거 서술이 되지 못함으로써 글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나), (다)의 비교 또한 미약한 점이 있네요. 제시문 (나)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은 완벽합니다. 주장도 좋고, 근거도 완벽해요. 하지만 제시문 (다)는 인과론이 유의미 하다고 보면서, 근거서술에는 담론의 수준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했어요. 문맥상으로 제시문 (다)에서 담론의 수준의 가치만 지닌다는 것은 가치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의미하다라는 주장에 무의미하다라는 근거가 들어간 셈이 되버리네요. 논리가 무너진 글이에요.

3.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나),(다)는 둘다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하지만 제시문 (나)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제시문 (다)는 가능은 하지만 모든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 진정한 규명은 불가능 하다. 이렇게 가는게 더 타당해요. 그럼 제시문 (다)와 (가) 둘다 불가능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잇는데, (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는 너무 많아서 진정한 인과론 규명이 불가능 이렇게 되겠죠?

4. 비교 문제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글의 구조나 문맥을 나누는 형식상에선 좋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겉핥기식 공부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교기준을 나눠놓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근거서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나)vs(다)를 비교 할 때는 또 제시문의 문맥을 이해하지 않은 채 써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버리는 독해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문제2. <표 대응>

1. 일단 첫문단이 한문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나누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1~2문단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어서 써주세요.
2. 지금 2문단에서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비례상태를 말해주고, 예외점을 들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례가 나타나고, 어디서 예외가 나타나는지를 수치상으로 근거를 정확히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답안을 읽는 사람이 그 예외점이나 비례점을 표를 보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을 정도로 근거 서술이 불충분해요.
3. 3문단도 마찬가지에요. 소득 수준이 추가 되서 이로 인해 바뀐 결과에 대해 서술해 주셨는데 예외점을 또 그냥 나열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서술이 필요해요.
4. 4문단 결론낸 문단이 제일 큰 문젠데요. 일단 발문상으로는 제시문 <나>,<다> 둘중 하나의 관점에서 글을 분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문단 결론은 두 제시문의 관점이 섞여 버려서 글 중간 흐름이 이상해져요. 처음 문단에 <다>로 <라>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1134명~'나오기 전까지 나온 내용들 까진 좋아요. 소득수준이라는 기준이 추가됨으로 인해 예외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완벽한가? 아니다. 왜냐면 더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마지막 줄에는 또 써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라>의 내용이 뜬금없이 포함되면서 글 자체 흐름이 완전 꼬여버렸어요.
5. 표 대응 문제 총평을 하자면, 일단 표 해석 부분에서 나중에 대응을 할 때 사용할 대응포인트들을 정리 해줬어야 되는데 대응 포인트들이 없고 단순한 표에 대한 내용설명에서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대응 포인트들이 제시되지 않으니 그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근거 서술할 내용들도 빠져버리구요. 마지막으로는, 표 대응 자체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제시문 다에 결론이 나왔기에) 하나 아쉬운 점은 중간에 의미없는 (라)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글의 흐름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네요.